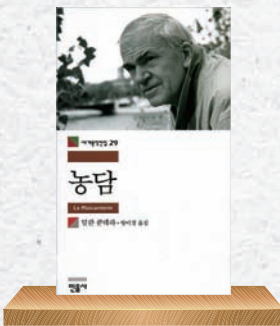




책 속으로

+ 방송과기술 편집부

‘책 속으로’는 읽을 만한 책 소개와 함께 기술인이 직접 읽고, 그 소감을 독자와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회원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 많은 도움이 되었던 책, 나를 새롭게 만든 책 등을 읽으며 느꼈던 감정을 되살려 공유하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농담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밀란 쿤데라 저 / 방미경 역 / 민음사 / 정가 9,000원

농담 때문에 마치 농담처럼 인생이 몰락해버리고, 그 복수마저 농담처럼 실패해버린 한 남자의 인생을 조망하며 인생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소설. <농담>은 그저 젊은 시절의 질투에 기인한 ‘풍자적 농담’ 때문에 체제의 공격을 받아 인생 전체가 나락으로 빠져버린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젊음을 허비하고, 자신을 배신한 친구에게 복수를 하려 그의 아내를 빼앗지만, 이미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조금의 열정도 남아있지 않아 복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또한 이 여인이 주인공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는 바람에 오히려 그녀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주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마저 발생한다.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운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저 / 양희승 역 / 중앙북스 / 정가 12,000원

라다크는 히말라야 고원이라는 폐쇄적인 지리적 환경 덕분에 무분별한 서구적 개발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가장 최근까지 지역중심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며 지속되어 온 마을이다. 저자는 라다크에서 경험한 에피소드를 통해 오래된 미래 속에서 발견한 행복이라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문명의 발달이 사람에게 가져다준 편리함과 빠른 속도, 그로 인해 과연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있는지 혹은 휘몰아치는 속도에 잊고 지나치는 소중한 가치는 없는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책.



죽음의 밥상

농장에서 식탁까지 그 길고 잔인한 여정에 대한 논쟁적 탐험

피터 싱어, 짐 메이스 저 / 함규진 역 / 산책자 / 정가 15,000원

우리의 한 끼 식사에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의 죽음이 있을까? 기존의 채식주의에 관한 책들이 인간의 몸의 관점에서 채식주의를 이야기한 데 비해 이 책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공식적으로 칸란이 좁은 우리에서 키워지는 소, 돼지, 닭의 처우에 대한 현실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리고 인간이 과연 동물보다 우월한 존재인지, 종과 종간의 상하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화두를 던진다.



로지코믹스

버트런드 러셀의 삶을 통해 보는 수학의 원리

아포스톨로스 독시아디스, 크리스토스 H. 파파디미트리우 저 / 알레코스 파파다토스 그림 / 전대호 역 / 랜덤하우스코리아 / 정가 14,800원

비트겐슈타인의 스승인 버트런드 러셀의 드라마틱한 삶과 수학과 철학 사이에서의 열정적인 진리 추구의 여정을 소설과 일러스트 형식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논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모순을 혐오하고 세계를 마치 지도와 같이 정확히 그려내고자 한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모순 덩어리이기에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긴장감과 그 속에서 한 시대를 풍미한 논리학자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

공정의 배신

긍정적 사고는 어떻게 우리의 발등을 찍는가

+ 조영훈 SBS 송출기술팀



글: 바버라 에런라이크

영화 <예스맨>의 주인공 짐캐리는 매사에 항상 부정적이며 염세적인 자세를 취하여 스스로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은행 대출 상담 직원이다. 어느 날, 그는 '인생 역전 자립 프로그램'에 가입하면서 무조건 'YES!'를 외치는 예스맨이 되었다. 모든 일에 대해 무조건적인 YES!를 외치자 그의 삶은 달라진다. 승진, 사랑, 우정 등등 모든 일들이 예전에 비해 잘 풀려나가는 것만 같다. 하지만 그는 그가 사랑하게 된 주이 디샤넬의 진실된 마음을 얻는 데에는 실패하고 다시 한 번 공정의 의미를 생각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YES(공정)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공정의 배신>에서 저자 바버라 에런라이크는 영화 속 짐캐리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 저자는 유방암에 걸리면서 암 환자 커뮤니티를 접하게 되고, 그들이 암을 극복으로 여기는 태도를 목격하게 된다. 그들은 암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치료법이 긍정적인 자세로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암을 극복한 생존자들은 자신들이 삶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해준 암에 감사하며 다시 암에 걸리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누구도 왜 하필 자신인가 왜 이런 화학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불만을 공론화하지 않는다.

저자는 암환자들에게서 느낀 무분별한 긍정주의를 계기로 세상에 만연한 긍정주의의 역사적 배경을 파헤친다. 그리고 주술적인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는 자기계발서, 장엄한 신의 표식들을 없애고 공연장과 같은 모습을 한 초대형 교회, 확실한 인과관계가 아닌 모호한 상관관계를 통해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는 긍정심리학자들에 대해 조목조목 날카로운 비판을 해나간다. 나는 <공정의 배신>을 읽는 내내, 저자가 이대로 긍정주의에 대한 비판만을 쏟아낸 채로 이야기를 끝마치는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들었다. <예스맨>에서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 진실된 긍정주의가 필요하다는 해답을 내놓았다면 <공정의 배신>에서는 어떠한 결론을 내놓을지에 대한 기대였다. 책의 페이지가 9할이 넘게 넘겨지는 동안에도 저자는 계속해서 그 동안 내가 믿고 있었던 긍정심리학의 근거들을 깨부수는 반례들을 들이대었지만 어느 한 문장도 긍정심리학이 일정부분은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다. 저자는 결국 짧은 맺음말을 통해 이야기한다. 앞으로 우리는 사회가 강요하였던 '긍정적 = 좋은'이라는 의식을 의도적으로 교정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언제나 최악의 상태를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방어적 비관주의가 필요하다고. 여전히 긍정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조금 아쉬웠지만 저자도 결국 지속가능한 낙관주의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이 아닐까?

철학자 미셸 푸코는 지속가능한 낙관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도 알다시피 인생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겠조. 낙관적인 낙관주의는 좀 멍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비관적 비관주의는 좀 신경질적이고요. 그래서 비관적 낙관주의야말로 이 세상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